



# 양동복개상가, 브랜드 '더 있다'로 옛 명성 있다

### 상가협, 의류·가방·침구 등 자체브랜드로 판매

### 상품디자인·쇼핑몰 구축 지원...재래시장 활성화 기대

싼 제품을 파는 것은 더 이상 전통시장의 장점이 아니다. 비싸게 가격을 붙였다가 선심 쓰듯 깎아주는 것도 더는 상인의 미덕이 될 수 없다. 물건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눈이 간간해지고 인터넷 쇼핑과 해외직접구매, 대형매장 등 소비처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요구도 늘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팔아야 한다.

광주양동복개상가 상인들이 공동 브랜드 '더 있다'를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재래시장이 공동 할인행사

은품 증정 등의 행사를 여는 일은 잦지만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디자인과 판매를 함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26일 광주양동복개상가협회(협회장 손중호)에 따르면 최근 입주 상가의 공동 브랜드인 '더 있다'를 선보였다.

광주양동복개상가는 최근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골목형 시장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양동복개상가에서는 브랜드 개발,

상품디자인 및 공간 재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상인들이 공동으로 기획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공간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 또 누구나 쉽게 양동복개상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이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일종의 특화상품 공동브랜드 '더 있다'를 통해 다양한 런칭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공동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판매장 '더 있다' 쇼룸 등지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고객감사 이벤트를 통해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줬고, 상가 4곳의 제품을 일종의 꾸러미 형태로 할인 판매했다.

또 쇼룸 '더 있다'를 찾는 고객에게는

큰 교환권을 나눠주기도 했다.

손중호 회장은 "전통시장의 제품은 브랜드가 없다는 편견을 깨고, 양동복개상가의 이름을 걸고 좋은 제품이 '더 있다'는 브랜드 명을 내걸었다"면서 "더욱 많은 소비자가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경품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런칭기념 고객감사 세일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양동시장 KDB생명 앞 행사장에서 계속된다. 행사 기간 총 400만원 상당의 경품과 상품권을 추첨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양동복개상가 특화상품 더 있다를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응모권을 준다.

추첨은 오는 5월 21일 한중문화교류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패션의 완성' 컬러풀 컴포트화** 2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구두 매장의 편한 신발(컴포트화)을 소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 백화점의 컴퍼·락포트·바이네르 등 컴포트화 전문 브랜드의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동기대비 약 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전남중기청, 청소년 비즈쿨 58개 학교 선정

<학교서 창업교육>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은 26일 2016년 청소년 비즈쿨 58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즈쿨은 Business와 School을 결합해 '학교에서 창업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체험을 통해 미래

CEO를 양성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27일 광주Y웨딩컨벤션에서 해당 학교와 광주시교육청, 조선태 창업지원단, 순천대 창업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비즈쿨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선정

된 비즈쿨은 광주 11곳, 전남 46곳, 제주 1곳 등으로, 초등학교가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이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500만~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추천회원	추천회원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우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b>여</b>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за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넌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9.63 (+5.08)	금리 (국고채 3년) 1.45% (0.00)
↓ 코스닥 702.06 (-1.64)	↑ 환율 (USD) 1151.00원 (+3.20)

## 효성, 13억 무슬림 시장 뚫는다

### 인니 섬유전 4년 연속 참가...무슬림웨어 스판덱스 공략

효성은 오는 27~30일 자카르타 국제 전시장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섬유기계 전시회 '인도 인터텍스(In-ndo Intertext)'에 참가한다. 2013년부터 4년 연속 출전이다.

조현준 섬유PG장(사장)은 26일 "인도네시아는 인구 87%가 이슬람교도여서 현지 성과가 13억 무슬림 시장에서도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레오라(creora?)의 우수한 품질을 알려 글로벌 1위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섬유 시장은 무슬림 웨어 중심으로 스판덱스 원사 수요가 증가하

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효성은 인도네시아가 전체 무슬림 시장의 테스트 마켓 역할을 할 수 있어 무슬림 웨어 시장의 마중물로서 현지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효성은 현지 섬유·패션 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이 실력을 펼칠 무슬림 웨어 디자인 공모전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수상작을 효성 부스에 전시한다.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패션 브랜드 사스미라에서 출시된다.

효성은 앞서 25~26일 인도네시아 고객사들과 크레오라 워크숍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지난 25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소비자 단체장 초청 간담회 후 조환익(가운데) 사장과 김자혜 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 한전, 5개 소비자 단체장 간담회

### 에너지밸리·신산업 정책 설명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지난 25일 한전 본사에서 소비자 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5개 소비자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전이 빛가람 나주로 이전 후 갖는 첫 소통의 자리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와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전 조환익 사장은 한전의 이익과 성장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에너지계 전체의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길잡이로서 한전의 역할을 설명했다.

한전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산업 환경에 단순한 전력공급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클린 에너지와 ICT 융합전력망

으로 스마트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미래 역할을 강조하고 세계속 에너지허브가 될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향후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 녹색소비자연대(회장 박인래), 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사무총장 홍혜란) 등 각 단체장들은 전력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사전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